

2018년 북극씨클포럼 프로그램(안)

2018. 11. 26.(월) 글로벌환경과학과

1 북극씨클 한국포럼 개요

- (일시 및 장소) 12.7.(금)-8.(토),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
- (개최기관) 외교부, 해양수산부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극지연구소 및 북극씨클 사무국
- (주제) Asia meets the Arctic : Science, Connectivity, and Partnership
 - 북극 관련 △과학, △혁신(에너지, 해운) 및 △정책 등을 주제로 세부세션 운영
- (참석규모) 국내·외 북극 관련 정부기업·연구기관 관계자 및 기타 전문가 등 약 300명

※ Grimsson 이사장 개회사에 이어, 외교부 장관님,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 및 차기 북극이사회 의장국(아이슬란드)의 장관급 인사 축하 예정

2 행사 일정(안)

일자	시간	구분
12.7. (금)	09:00~10:00	등 록
	10:00~10:40	개 회 식 (개 회 사·환영사)
	10:40~11:00	coffee break
	11:00~12:30	제1세션 북극 과학 (Arctic Science to serve the Arctic and Global Needs)
	12:30~14:00	네트워킹 오찬
	14:00~16:00	제2세션 북극 혁신 : 연결성, 에너지, 항로 및 인프라 (Arctic Innovation: Connectivity, Energy, Shipping and Infrastructure)
	16:00~16:15	coffee break
	16:15~17:15	제3세션 과학계와 산업계간 대화 (Dialogue between Science and Business)
12.8. (토)	08:30~09:00	등 록
	09:00~10:00	제4세션 : 북극의 미래-아시아 관점에서 (The Future of the Arctic: Asian Perspective)
	10:00~11:00	제5세션 : 북극의 미래 : 북극권 국가-국제 협력 (The Future of the Arctic: Arctic States-International Cooperation)
	11:00~12:00	북극의 미래: 대화 (The Future of the Arctic: a Dialogue)
	12:00~13:00	오찬
	13:10~	극지연구소 방문

※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경 가능

가. 창설 및 목적

- 북극 이슈에 대한 폭넓은 대화 및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3.4.15 아이슬란드 Grimsson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설립
 - 아이슬란드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정부·비영리 민간조직 성격
- 세계 각국의 정부관리, 기업·NGO·전문가·정책결정자·오피니언 그룹이 참여하여, 북극 관련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 ‘북극 관련 다보스 포럼’으로 정착중

나. 총회(General Assembly)

- 매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서 개최되며 약 2,000여명의 북극 관련 정부인사, 전문가 등 참석하는 북극관련 최대 규모 국제 포럼
- 총회에서는 항행·자원·에너지·수산·북극규범 창설 등 광범위한 이슈 논의

다. 포럼

- 북극써클 총회 이외에 보다 규모가 작은 회의로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주제 하에 대체로 매년 2차례 개최되며,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와 북극써클 사무국이 공동으로 주최

※ 참고 : 역대 북극써클포럼 개최식 축하 사례

- 덴마크 패로제도(2018년.5월) : Anders Samuelson 덴마크 외교장관 등
- 스코틀랜드(2017.11월) : Nicola Sturgeon 스코틀랜드 제1장관, Guldlaugur Thordarson 아이슬란드 외교장관 등
- 캐나다 퀘벡(2016.12월) : Vittus Qujaukitsoq 그린란드 외교장관, Philippe Couillard 퀘벡주총리 등
- 덴마크 그린란드(2016.5월) : Kim Kielsen 그린란드 총리 등
- 싱가포르(2015.11월) : Teo Chee Hean 싱가포르 부총리 등. 끝.